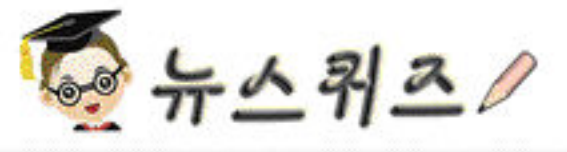


오늘의 기사관

광주시 남자청소년센터 '어깨동무' 개소식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서석동 남자청소년센터

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제 7회 무등산 사진전=31일까지 자미갤러리. 한국화·서양화·문인화 등 51점.



▲광주시 남자청소년센터 '어깨동무' 개소식=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KT 건너편 남자청소년센터.
(18일)
▲광주 전남 경총 금요초연우회는 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연회장. 김형기(늘푸른샘 대표)씨가 '창조적 인생'에 대해 강연
▲한·중 청소년교류협회가 민속캠프 환영식=오전 9시 대한적십자사 수련원 강당. 한·중 고교생 150명 참가해 교차유목놀이 등 교류 민속놀이 체험. 20일까지.
▲제 25회 2006 장애인 해변문화체험 대회=오후 5시30분 진도군 고군면 가계 청소년수련관.
▲제 5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회 위원회=오후 4시 광주시청 상황실.

▲북한영화 '금강산으로 가자' 상영=17일(목) 오후 4시 일곡 도서관 강당.
▲환경영화 '사크'=17일(목) 오전 10시, 오후 2시 일곡도서관 강당.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전야제=18일(금) 오후 7시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미래를 연주하자! Play Music The Future!'라는 주제로 국내 30개팀·해외 5개국 10개팀이 참여해 경연.
▲뮤지컬 '헨젤과 그레텔'=18일(금) 오전 10시 10분, 11시20분, 오후 3시 광산문화예술회관.
▲가족뮤지컬 '알라딘'=18일(금) 오전 10시30분, 낮 12시50분 서구문화센터.
▲워진수 개인전=23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김중준 사진전=23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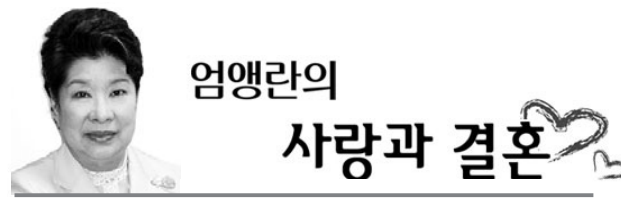
롯데회관.
▲김중경 한국전=23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전남대 동문 조각전=23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제 42회 전남도전 입상작품 광양순회전=19일까지 광양시 문예회관 제 1·2전시실.
▲북한관련 도서 전시회=20일까지 일곡도서관 1층 로비. 북한 도서 150여권 전시. 북한 영화 상영.
▲중국작가 탕마오홍의 'Sunday'전=2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인 탕마오홍씨가 제작한 대형 애니메이션 작품 전시.
▲동양척식회사 복원기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

역사속의 오늘

▲서울에 신식인쇄소 박문국 설치(1883)
▲호루시초조 출생(1894)
▲연호(年號)를 건양(建陽)에서 광무(光武)로 고침(1896)
▲상상계 발행인 장준하 의사(1975)
▲서독 올림픽위원회,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부상품인 고대 그리스 청동투구를 손기정씨에게 반환(1986)
▲러시아, 부활표시외체에 대해 90일간 모라토리엄을 선언(1998)
▲클린턴 미 대통령,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관계를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1998)
▲미국 스포츠 칼럼니스트 짐 메레이 별세(1998)

25.최근 개봉한 이 영화가 기존의 한국영화계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620개 상영관에서 출근 여매물 선두를 고수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역대 최단 기간에 1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① 괴물 ② 한반도 ③ 다세포소년 ④ 각설량

참여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③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자

한 길 물 속보다 더 알기 힘든 것이 사람 속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도 어려운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친절한 사람이니까 나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야, 설마..."
누구나 한번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받았을 때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소개팅을 나갔다고 가정하자.
후방이 보이는 매력적인 사람을 만났다면 일단 첫 인상은 좋게 평가하고 답소를 내놓을 것이다. 성격도 좋고 내가 찾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 좋아하는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확인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분명히 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 나 좋아해?' 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 것 같다.
정말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단순한' 확인 수준이다. 고백의 느낌이 전혀 녹아있지 않다. 만약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접겠다는 투다.
그렇다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성을 가볍게 만난다는 말이거나 이성을 보는 기준이 낮다고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먼 거리에서 바라볼 때도 설레임을 느낄 수 있고 짧은 기다림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처음 가졌던 좋은 느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좋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신전하고 더 좋은 느낌을 받는다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닐까?
당신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늘 생각해야 한다.
연애에 대한 자신감, 믿음의 기준 등이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단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은 자신이 먼저

내 마음을 열어야 상대방 마음도 보인다

상대방의 다양한 행동과 말을 하는 느낌을 이해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조건 잘해 주는 것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 그 사람이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무조건 잘해주기 보다는 이유가 있는 친절과 정성이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할 것이다.
흔히 연애를 시작할 때 첫눈에 반했다는 말과 너만을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손잡이는 안에만 있다. 밖에서는 열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자.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지 않을까?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권선트>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지역바둑대회
아슬아슬한 탈출 3회전 제 9보(150~183)
흑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백 박광주 5단 <포스코>
가
<참고도>
박광주 5단은 고민 끝에 151로 나가 153으로 끊고 말았는데 이 수로 '참고도'의 흑 1로 이터라도 백 2가 선수가 되어 4로 깨끗하게 탈출이 된다.
백 56으로 한점이 잡혀서는 백 대마를 잡기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바둑소식
그린피아·명인배 바둑점수 시작
다음달 2~3일 벌어지는 '제8회 그린피아·명인배 전국 학생바둑대회'의 점수가 시작됐다.
참가 자격은 ▲중·고등부 3급 이상 선착순 64명 ▲어린이 최강부 아마 유단자 이상 선착순 128명 ▲어린이 고학년(4~6년)부 1~9급 선착순 128명 ▲어린이 저학년(1~3년)부 1~9급 선착순 128명 ▲유치부 미취학 아동 선착순 64명 등이며, 접수 마감은 25일.
예선은 다음달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성남체육회관에서 조별 리그 방식으로, 본선은 3일 한국기원 2층 대극장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문의 02-736-4714 /윤영기기자 penfoo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7일(음 7월 24일 戊寅)
子 36년생 주변의 식욕이 줄어들 수도 있으리라. 48년생 희망은 속사이나 서둘러는 말라라. 60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되는 일도 많지만. 72년생 술을 들리고 이웃을 둘러보라. 84년생 행운은 배나 배나 더 생각하라. 행운의 숫자 : 03, 39
丑 37년생 새 일이 불행하나 길사로 연결된다. 49년생 앞 일이 걱정되나 흉사는 없다. 61년생 물건을 조심하라. 73년생 시기상조이나 슬통은 터진다. 85년생 옛 동료들과 관계를 유지하라. 좋은 일이 생길 수다. 행운의 숫자 : 10, 33
寅 38년생 앞 다투어 나가기 서로가 손재로다. 50년생 모진을 찾아보고 문안사를 드려라. 62년생 주변을 살펴보고 흥제가 생길 수다. 74년생 득보다는 실이 크니 인내하며 화해하라. 실마리는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4, 25
卯 39년생 마무리를 잘하면 어부지기 할 수다. 51년생 모든 일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살리를 추구해야 하리라. 63년생 시기상조이나 충분한 자기 사랑을 확보해야. 75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충사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08, 26
辰 40년생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로 해결하라. 52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경계망동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64년생 매사에 신중하고 규모를 축소하며 현실에 만족하라. 76년생 희망의 설계가 생길까 준비하며 기다리라. 행운의 숫자 : 05, 37
巳 41년생 적절한 마무리로 모든 일이 순환하니 외형과 실리를 줄이고 실리에 집중하라. 53년생 황제수를 기대하라 노력으로 이루어라. 65년생 생기가 발산되고 옛것으로 새로운 일이 생성한다. 77년생 새로운 만남은 성공으로 이어진다. 행운의 숫자 : 13, 29
午 42년생 새로운 희망의 설계가 있을 수 있고 두세 명의 협력자가 나타난다. 54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라 지연되면 손실이다. 66년생 가타이 안장되고 증식되는 경사가 있다. 78년생 신중할 생각으로 앞일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2, 39
未 43년생 남성이 많을 수다 신중하게 처신하면 대손은 없다. 55년생 중인이 음모한다. 두루두루 살펴보라. 67년생 집안이 소란하니 침착하게 수습하라. 79년생 남의 입을 조심하라 구설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4, 26
申 44년생 위험을 줄이고 살리로 바꾸어라. 56년생 새로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성립되나 진행까지는 조기상조. 68년생 과욕은 금물이고 동맹은 불화가 된다. 80년생 혼자 사는 여자에게 기회가 온다. 행운의 숫자 : 23, 27
酉 45년생 길사는 적으나 하는 일에 집중하라. 57년생 원한 맺힌 미운 사람 용서를 해버라라. 적군이 품에 든다. 69년생 마지막 속임수를 조심하고 변동하지는 마라. 81년생 자기 일을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2, 33
戌 46년생 큰 고통은 없다. 58년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급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70년생 이면이 진행까지는 조기상조. 68년생 과욕은 금물이고 동맹은 불화가 된다. 80년생 혼자 사는 여자에게 기회가 온다. 행운의 숫자 : 21, 30
亥 47년생 산뜻한 새 맛으로 상쾌한 하루로다. 59년생 절대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말고 살리를 점검하라. 71년생 옛 인연을 끊지 마라. 중요한 협조자다. 83년생 잃은 자식 찾은 듯하니 다행한 하루로다. 행운의 숫자 : 08, 25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713>
Is it all right if~?
~해도 괜찮겠습니까?
A: Is it all right if I open the window a little bit? It's getting stuffy here.
B: Please go ahead.
A: Umm... feels better!
B: Summer is getting peaked, isn't it?
A: 창문을 약간 열어도 괜찮을까요? 답답해서요.
B: 그렇게 하세요.
A: 음, 훨씬 낫네요.
B: 여름이 점점 더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지요?
Is it all right if~? : ~해도 괜찮겠습니까?
- Is it all right if use your telephone?
= Can I use your telephone?
= May I use your telephone?
= Are you allowed me to use your telephone?
stuffy : 통풍이 나쁜, 숨막힐 듯한
peak : 최고점[한도]에 달하다, 절정이 되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13>
何か お手傳(てつだい)いしましょうか
뭘 좀 도와드릴까요?
A: ジャあ、何か お手傳(てつだい)いしましょうか。
B: それはありがたいですね。家内も喜(よろこ)びますよ。
A: それでは、今度の週末(しゅうまつ)に伺(うかが)いますから...
B: ジャあ、そうして ください。ありがとう。
A: 그러면 뭘 좀 도와드릴까요?
B: 그거 고맙군요. 아내도 기뻐할 겁니다
A: 그럼 이번 주말에 찾아뵙겠으니까요...
B: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소
喜(よろこ)ぶ : 기뻐하다
手傳(てつだい)い : 도와줌, 거들어줌
伺(うかが)う : (訪)오(と)ず)러는 방문하다의 겸양어)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431>
麻烦您给我照张相, 好吗?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A: 麻烦您给我照张相, 好吗?
B: 好的, 这个怎么拍?
A: 好的, 这个怎么拍?
B: 知道了. 请笑一笑.
A: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B: 네, 어떻게 찍어야 할까요?
A: 저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까요?
B: 알겠습니다. 웃으세요.
照相 [zhào xiàng]: 사진 찍어 줌
怎么 [zěn me]: 어떻게
知道 [zhī dào]: 알다
笑 [xiào]: 웃음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31>
冤死狗烹(토사구팽)
토끼 토, 죽을 사, 개 구, 삶을 펴
토사구팽(冤死狗烹)은 토끼가 죽으니 슬도없게 된 사냥개를 삶는다는 것으로, 필요할 때는 잘 써먹다가 일이 끝나면 냉정하게 내버림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 말은 유방(劉邦)과 한신(韓信)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한(漢)나라를 세울 때 한신은 많은 공을 세웠지만, 천하 평정 뒤에 유방에게 경계를 당하다가 옥에 갇히고 만다. 그러자 한신이 유방에게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달리던 사냥개는 삶기며(狡兔死, 走狗烹), 높이 날던 새가 다 잡히고 나면 좋은 활은 창고에 들어간다.(高鳥盡, 良弓藏)"라는 말을 하였다. 결국 이 말은 들은 유방이 한신을 풀어주고 회음후(淮陰侯)라는 낮은 직급으로 좌천시킨다. 간신히 옥에서 풀려나온 한신은 불만에 가득 차 반란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정치권에서는 토사구팽의 사태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한 때의 은인이 적으로 바뀌어 서로를 공격하는 비정한 현실이다. 요즘은 이 말을 줄여서 '팽(烹) 당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사람사이의 신의(信義)가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신마저 당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한예민(韓睿嫻)>
조선대학교 교편연구원 ☎ 230-6505